

# 주말부부의 자녀 양육

호서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한유미

## I. 서론

-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사회의 변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 전통적 가족(세대간의 수직적 관계) => · 핵가족(세대간의 분가) => · 비동거 가족(세대내의 분거)
- 우리 나라의 경우, 비동거 가족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 60년대 ; 이농현상으로 인한 일시적 비동거 가족
  - 70년대 ; 중동의 건설 붐으로 인한 해외인력수출정책으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동거 가족
  - 80년대 ; 지방산업의 활성화로 남편은 지방에,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남는 주말가족
  - 최 근 ;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맞벌이 주말부부(commuter couple)
- 주말부부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남편외유형  
    홀벌이 주말부부이며, 동기는 대개 경제  
    비자발적 분거 결정 - 남편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며, 대개 남편이 이동
  - 별거왕래형  
    맞벌이 주말부부로 대개 전문직, 기술적 직업이나 관리직, 개인적 만족감이 주된 동기  
    분거 결정이 자발적 - 누가 이동할 것인지 선택
- 특히 주말부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 문제인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다.
  - 이기숙(1999) - 남편, 부인에 관계없이 자녀 자녀양육이 가장 큰 관심사
  - 허영숙(1993)의 주말부부 여교사 - 부모, 부부, 직업 역할 중 부모역할 갈등이 가장 심각
  - Johnson(1986)- 자녀의 질병, 통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육아를 못하는 것, 부모자녀 관계의 긴장이 근심
  - 김태현·박숙자(1992)의 지방과 해외 비동거 가족 - 부인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 영역에 가장 불만  
    부모의 비동거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이 90%
  - 김경은·정옥분(1998) - 아버지가 집에 오는 횟수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 중 적응성 차원에 영향
  - 박희선(1999) - 아버지의 방문기간이 짧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양육죄책감이 큼
  - 채옥희(1998) - 자녀가 어릴수록 심리적 부적응을 걱정하며, 시가나 친정에서의 양육이 부담을 줄여줌
  -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 친정부모나 시부모의 거주지와의 근접성은 부인의 역할갈등에 영향력 없음
  - Winfield(1985)의 맞벌이 주말부부 - 부모역할 갈등은 직종에 따라 차이
  - Gross과 Gerstel(1984)의 맞벌이 주말부부 - 업무시간의 융통성이나 부부의 근무지간의 거리도 영향  
    =>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문제는 주말부부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어머니의 취업관련 변인,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 비교집단 없이 주말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주말부부 집단내 비교).  
    => 연구결과가 주말부부라는 상황에 의한 것인지 일반적인 부모역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로 주말부부를 일반부부와 비교하겠다(집단간 비교).

- 비교집단을 포함한 연구들의 경우, 일반적인 주말부부보다는 맞벌이 주말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전통적인 주말부부도 아직 많이 있으며, 주말부부 유형에 따라서도 양육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유형의 주말부부를 모두 포함, 비교할 것이다(주말부부 집단내 비교).
- 주말부부의 양육문제를 부모입장에서 접근하고, 아동발달 측면에서 본 연구는 김경은·정옥분(1998)뿐이다.  
=> 이 때에도 사회성 영역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인지 영역과 사회성 영역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실태(대리양육 방법, 비용, 만족도)
- 연구문제 2 :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의 발달과 자녀양육 문제(집단간 비교)
  - 2-1 : 주말부부 어머니 자녀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은 일반어머니 자녀와 차이가 있는가?
  - 2-2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는 일반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 2-3 : 주말부부 어머니가 인지 및 사회적 부모역할에 대해 지각하는 어려움은 일반어머니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 주말부부 어머니의 자녀양육 문제의 관련 변인(집단내 비교)
  - 3-1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2 :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관련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용어의 정의 및 관련 변인의 선정

- 양육죄책감 ;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이에게 느끼는 미안함
- 양육스트레스 ; 부모 됨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 부모역할의 어려움과 귀인; 인지적, 사회적 과제를 중심으로 부모역할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어머니 자신 또는 아이 중 누구로 지각하는가 하는 성향
- 자녀의 발달 ; 인지 및 사회성 측면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유능성
- 주말부부 관련 변인; 주말부부가 된 이유, 주말부부 지속기간, 소요시간, 방문빈도, 연락빈도, 방문지속일수
- 인구통계학적 변인; 자녀의 수, 해당 자녀 연령, 막내 자녀 연령,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 유무
- 취업 관련 변인; 어머니의 직장에서의 시간적 융통성, 직장에 대한 애착, 가정vs직업 지향성
- 심리 사회적 지원 변인 ; 시가, 친정, 친구 및 이웃에게서 받는 육아 정보 및 도움, 남편의 협력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3-8세)를 둔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 174명(집단별로 87명)
- 주말부부 집단은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떨어져 지내는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부부로 한정했으며, 주(또는 부)양육자의 역할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자녀가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만 포함시켰다.

### 2. 측정도구

- 주말부부의 일반적 특성 및 자녀양육실태
  -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구성
  - 심리사회적 지원 중 남편의 협조는 Abdin(1998)을 변안·수정한 신숙재(1997)의 척도(범위; 13-65,  $\alpha=.85$ )
- 자녀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

- Galper et al(1997)를 변안한 한유미·장혜자(2001)척도의 인지영역과 사회성영역(범위; 8-40,  $\alpha = .87-.89$ )
- 양육죄책감
  - 7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박희선(1999) 척도(범위; 7-35,  $\alpha=.90$ )
- 양육스트레스
  - Crinic과 Greenberg(1990)를 변안·수정한 박성옥·양연숙(1998)의 척도(범위; 15-60,  $\alpha = .88$ )
- 인지 및 사회적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 Melson, Ladd와 Hus(1993)의 Perceived Difficulty at Parenting Tasks를 연구자가 수정·변안
  - 부모역할의 어려움 - 인지와 사회성 영역으로 구성. 영역별 범위는 10-40점(각 10문항)이며  $\alpha$ 는 .72 -.80
  - 어려움의 귀인 - 어려움의 원인을 어머니(또는 아이)로 지각한 문항의 수를 합하여 산출(범위; 0-20)

### 3. 자료수집

- 주말부부 어머니의 표집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사를 통해 학부모 중 표집
  - 연고자를 통해 주말부부 어머니를 소개받고, 그부터 또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 방식
  - 주말부부 인터넷 동호회(daum.net.kr, Zubu21, iloveschool)의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연구 참여를
- 일반부부 어머니의 표집
  - 주말부부 어머니로부터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일반 어머니를 직접 소개받음
  - 학급 단위로 일반 어머니를 표집한 후 매칭(기준; 어머니 취업, 자녀 연령 등)
- 표집된 대상에게 질문지를 직, 간접적으로 배부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고 회수함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74

변인	구분	주말부부 빈도(%)	일반부부 빈도(%)	전체 빈도(%)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14(16.1)	16(18.4)	30(17.2)
	31-35세	35(40.2)	35(40.2)	70(40.2)
	36-40세	27(31.0)	28(32.2)	55(31.6)
	41세 이상	11(12.6)	8( 9.2)	19(10.9)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27(31.0)	24(25.1)	51(29.3)
	초대졸	7( 8.0)	9(10.3)	16( 9.2)
	대졸	43(49.4)	40(46.0)	83(47.7)
	대학원 이상	10(11.5)	14(16.0)	24(13.8)
어머니의 직업	전문직	33(37.9)	34(39.1)	67(38.5)
	비전문직	20(23.0)	19(21.8)	39(22.4)
	무직	34(39.1)	34(39.1)	68(39.1)
월평균 어머니의 소득	0원	34(39.1)	32(39.5)	67(41.6)
	100만원 이하	12(15.0)	10(12.3)	22(13.7)
	101-200만원	18(25.7)	24(29.6)	41(25.5)
	201-300만원	11(13.8)	12(14.8)	23(14.3)
월평균 가정 총소득	301만원 이상	5( 6.3)	3( 3.7)	8( 5.0)
	150만원 이하	4(5.6)	2(2.9)	6(4.3)
	151-300만원	26(36.7)	24(34.3)	50(35.5)
	301-450만원	16(22.5)	26(37.1)	42(29.8)
해당 자녀의 연령	451-600만원	17(23.9)	12(17.1)	29(20.6)
	601만원 이상	8(11.2)	6(8.6)	14(9.9)
	3-4세	25(28.7)	23(26.4)	48(27.6)
	5-6세	34(39.1)	42(48.3)	76(43.7)
해당 자녀의 성별	7-8세	28(32.2)	22(25.3)	50(28.7)
	남	45(51.7)	45(51.7)	90(51.7)
	녀	42(48.3)	42(48.3)	84(48.3)
자녀 수	1명	23(26.4)	24(27.6)	47(27.0)
	2명	56(64.4)	51(58.6)	107(61.5)
	3명 이상	8(9.1)	12(13.7)	20(11.4)
지역	대도시	34(39.1)	34(39.1)	68(39.1)
	중·소도시	34(39.1)	33(37.9)	67(38.5)
	농·어촌	19(21.8)	20(23.0)	39(22.4)

<표 2> 주말부부로서의 일반적 특성

N=87

변 인	구 분	빈도(%)
주말부부가 된 이유	남편직장 및 자녀교육 부인취직 및 직장이동	57(65.6) 30(34.5)
주말부부 지속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이상	14( 6.1) 13(14.9) 38(43.7) 11(12.7) 11(12.7)
주말부부 청산 계획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아이가 중·고·대학교 입학 한쪽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고 기타	9(10.3) 14(16.1) 9(10.3) 31(35.6) 24(27.6)
동거자	아이-어머니 아이-어머니-시가식구 아이-어머니-친정식구	61(70.2) 11(12.6) 15(17.2)
이동 주체	남편 부인 반반	67(77.0) 10(11.5) 10(11.5)
소요 시간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44(50.6) 31(35.6) 12(13.8)
방문 빈도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회 주 2회 이상	6(6.9) 16(18.4) 39(44.8) 26(29.9)
방문지속 일수	하루 이틀 사흘	12(13.8) 65(74.7) 10(11.5)
배우자와 연락방법	전화 이메일 화상전화 편지	87(100) 33(37.9) 2( 2.3) 0( 0.0)
자녀와 연락방법	전화 이메일 화상전화 편지	87(100) 18(20.7) 0( 0.0) 2( 2.3)
배우자와 연락빈도	주1회 이하 주 2-3회 주 4-6회 매일	1( 1.1) 17(19.5) 9(10.3) 60(68.9)
자녀와 연락빈도	주 1회 이하 주 2-3회 주 4-6회 매일	5( 7.5) 13(14.9) 11(12.6) 58(66.6)

### III. 연구결과

#### 1. 주말부부의 양육실태는 어떠한가?

- 어머니가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일반부부의 경우와 동일했다(각기 28.7%)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 일반부부에 비해 시가보다 친정식구 의존도가 높고, 복수 방법의 빈도가 높았다.
- 대리양육에 지출되는 월평균 비용은 42만원으로 일반부부(31만 8천1백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표 3> 대리양육 방법

N=134

	시댁동거	친정동거	시댁식구	친정식구	과출부	입주가정부	중일제	이웃집	2가지	3가지이상	계
주말	3(4.8)	3(4.8)	1(1.6)	10(16.1)	3(4.8)	1(1.6)	14(22.6)	3(4.8)	16(25.8)	8(12.9)	62(100)
일반	7(11.3)	3(4.8)	7(11.3)	5(8.11)	3(4.8)	1(1.6)	22(35.5)	1(1.6)	8(12.9)	5(8.1)	62(100)

<표 4>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

빈도(%)

	주말부부	일반부부
매우 불만		1(1.5)
약간 불만	3(4.4)	5(7.5)
보통	31(45.6)	26(38.8)
약간 만족	26(38.2)	31(46.3)
매우 만족	8(11.8)	4(6.0)
계	68(100)	67(100)

<표 5> 대리양육 비용

단위(만원)

	M(SD)	t
주말부부(n=60)	42.00(26.11)	1.99*
일반부부(n=63)	31.81(30.48)	

\* p<.05

2.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발달 및 자녀양육 문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

○ 어머니의 취업 여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어머니의 취업 X 주말부부 여부로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 ·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간에 차이가 없었다(n.s.).

<표 6>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발달

N=174

	취업모(n=105)			전업주부(n=69)		
	주말어머니	일반어머니	계	주말어머니	일반어머니	계
	M(SD)	M(SD)	M(SD)	M(SD)	M(SD)	M(SD)
인지 발달	14.53(4.17)	15.04(2.83)	14.78(3.56)	15.35(3.56)	15.12(3.53)	15.24(3.52)
사회성발달	14.77(3.77)	15.60(3.62)	15.19(3.70)	14.68(3.95)	15.53(3.54)	15.10(3.75)
계	29.30(5.78)	30.64(5.39)	29.97(5.60)	30.03(6.41)	30.65(5.38)	30.34(5.88)

2-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죄책감

○ 해당 자녀뿐 아니라 막내 연령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막내 연령을 공변인으로 하여 분석했다.

=> ·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나 안 한 경우나 모두 주말어머니가 일반어머니보다 양육죄책감이 높았다.

(주말부부 여부 F=128.42, p<.01; 모의 취업유무 F=5.51, p<.05)

·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F=01, n.s.; F=7.55, n.s.)

<표 7>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죄책감

N=174

	취업모(n=105)			전업주부(n=69)		
	주말어머니	일반어머니	계	주말어머니	일반어머니	계
	M(SD)	M(SD)	M(SD)	M(SD)	M(SD)	M(SD)
양육죄책감	25.04(7.93)	23.96(6.47)	24.50(7.21)	25.69(7.76)	24.41(6.30)	25.06(7.05)
양육스트레스	40.38(10.70)	41.34(8.78)	40.87(9.74)	40.26(9.60)	39.94(10.7)	40.10(10.1)

2-3. 인지적, 사회적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귀인

- 부모역할 수행에 느끼는 어려움은 주말부부 어머니와 일반어머니간에 차이가 없었다(표8 참조).
- 그러나 주말부부의 경우, 사회적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일반부부의 경우에는 인지적, 사회적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지각과 귀인 소재는 관계가 없었다.

<표 8> 주말부부와 일반부부 어머니의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관한 지각

N=174

	취업모(n=105)			전업주부(n=69)		
	주말어머니 M(SD)	일반어머니 M(SD)	계 M(SD)	주말어머니 M(SD)	일반어머니 M(SD)	계 M(SD)
인지적 부모역할	25.47(5.31)	25.89(4.49)	25.69(4.90)	26.62(4.98)	26.37(5.48)	26.00(5.20)
사회적 부모역할	25.13(5.44)	26.42(4.39)	25.77(4.96)	26.71(4.89)	26.88(5.02)	26.79(4.92)
계	50.60(9.22)	52.30(6.93)	51.45(8.16)	53.32(7.81)	53.25(8.41)	53.29(8.06)

<표 9> 주말부부 어머니의 부모역할 어려움과 귀인성향간의 상관관계

N=87

	어머니(인지)	아이(인지)	어머니(사회성)	아이(사회성)
인 지	-.118	-.043		
사회성			.234*	.143

\*p<.05, \*\*<.01

<표 10> 일반부부 어머니의 부모역할 어려움과 귀인성향간의 상관관계

N=87

	어머니(인지)	아이(인지)	어머니(사회성)	아이(사회성)
인 지	-.033	.034		
사회성			.171	.012

3. 주말부부의 양육문제는 관련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1.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 변인

<표 11>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 변인

N=87

	내 용	n(%)	M(SD)	t/F
주말부부가 된 이유	남편직장 및 자녀교육	57(65.5)	24.86(7.71)	-.72
	부인취직 및 직장이동	30(34.5)	26.13(8.10)	
주말부부 지속 기간	22개월 미만	43(49.4)	26.19(7.89)	1.05
	22개월 이상	44(50.6)	24.43(7.75)	
주말부부 소요 시간	2시간 미만	44(50.6)	25.00(7.47)	.84
	2시간 이상	43(49.4)	24.58(8.19)	
방문 빈도	주 1회 미만	22(25.4)	24.68(9.00)	.11
	주 1회	39(44.8)	25.33(7.97)	
	주 2회 이상	26(29.9)	25.77(6.11)	
연락빈도	주 6회 이하	27(31.1)	26.15(8.09)	.68
	매일	60(68.9)	24.92(7.74)	
방문지속 일수	하루	12(13.8)	26.75(6.80)	1.31
	이틀	66(74.7)	25.58(8.10)	
	사흘	10(11.5)	21.70(6.63)	

인구통계 변인	자녀 수	1명	24(27.6)	24.29(7.79)	.40
		2명	51(58.6)	25.92(7.69)	
		3명 이상	12(13.7)	24.67(8.82)	
	해당 자녀 연령	5세 이하	39(44.8)	25.67(8.07)	.40
		6세 이상	46(55.2)	25.00(7.69)	
	변인	막내 연령	5세 이하	47(54.0)	24.74(8.26)
6세 이상			40(46.0)	25.95(7.32)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49(56.3)	25.39(7.93)	.12
		36세 이상	38(43.7)	25.18(7.78)	
어머니 학력		초대졸 이하	34(49.4)	24.74(8.36)	-.54
		대졸 이상	53(50.6)	25.66(7.51)	
어머니 취업	전업 주부	34(49.4)	25.53(7.82)	.03	
	취업보	53(50.6)	25.15(7.89)		
취업관련 변인	시간적 융통성	낮음	18(49.1)	26.63(7.81)	.90
		높음	41(50.9)	24.51(7.95)	
변인	직장 애착	낮음	22(41.5)	27.05(7.96)	1.49
		높음	31(58.5)	23.81(7.69)	
변인	지향성	가정 직업	26(49.1) 27(50.9)	26.31(8.79) 26.04(6.90)	1.05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정보 - 시가	낮음	66(73.9)
높음	21(24.1)			22.38(7.86)	
정보 - 시가	낮음		38(43.7)	26.45(7.40)	1.21
	높음		41(56.3)	24.41(8.10)	
정보 - 이웃	낮음		37(42.5)	25.89(7.42)	.61
	높음		50(57.5)	24.86(8.15)	
자녀돌보기 - 시가	낮음	63(72.4)	25.02(7.85)	-.55	
	높음	24(27.6)	26.04(7.86)		
자녀돌보기 - 친정	낮음	38(43.7)	25.97(7.51)	.71	
	높음	49(56.3)	24.78(8.09)		
자녀돌보기 - 이웃	낮음	42(48.3)	25.48(7.87)	.20	
	높음	45(51.7)	25.13(7.86)		
남편의 협력	낮음	41(47.1)	25.76(7.59)	.51	
	높음	46(52.9)	24.89(8.08)		

\* p<.05, \*\* p<.01.

- 주말부부 변인 ;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주말부부가 된 이유가 부인의 취업에 있을 때, 주말부부가 된 기간이 짧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 및 연락이 적을 때 양육죄책감이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 인구통계 변인 ; 예상과 달리 양육죄책감과 관계가 없었다.
- 취업관련 변인 ;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의 경우, 직장에서의 시간적 융통성이 낮을 때, 직장에 대한 애착이 클 때 양육죄책감이 큰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 시가나 친정으로부터 정보를 적게 받을 때 양육죄책감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시가만 있었다. 남편의 협조나 주변인이 제공하는 도움도 양육죄책감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 3-2.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 주말부부 변인 ;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가 된 이유와 관계가 없었으며,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이 길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방문빈도와는 무관했고, 연락 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 인구통계 변인 ; 통계적 의미는 어머니 연령에만 있었지만 막내, 해당 자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심한 경향이 있었다. 학력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 취업관련 변인 ;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시간적 융통성이 적을수록, 직장에 애착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업지향형 어머니보다는 가정지향형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많았다.
-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시가로부터는 정보적 지원이 적을 때, 친정으로부터는 도구적 지원이 적을 때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 남편의 협력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가 있어 남편이 협력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N=87

	내 용	n(%)	M(SD)	t/F	
주말부부 변인	주말부부가 된 이유	남편직장 및 자녀교육	57(65.5)	40.02(10.8)	-1.40
		부인취직 및 직장이동	30(34.5)	40.93(9.20)	
	주말부부 지속 기간	22개월 미만	43(49.4)	41.79(10.3)	1.32
		22개월 이상	44(50.6)	38.91(10.0)	
	소요 시간	2시간 미만	44(50.6)	41.68(9.87)	1.25
		2시간 이상	43(49.4)	38.95(10.5)	
	방문 빈도	주 1회 미만	22(25.4)	40.14(8.42)	.11
		주 1회	39(44.8)	40.38(11.2)	
		주 2회 이상	26(29.9)	40.42(10.4)	
	연락빈도	주 6회 이하	27(31.1)	44.30(9.84)	2.50**
매일		60(68.9)	38.55(9.95)		
방문지속 일수	하루	12(13.8)	41.75(8.31)	.45	
	이틀	65(74.7)	40.65(10.8)		
	사흘	10(11.5)	36.60(8.00)		
인구통계 변인	자녀 수	1명	24(27.6)	38.54(13.1)	.52
		2명	51(58.6)	40.75(8.36)	
		3명 이상	12(13.7)	42.08(11.2)	
해당 자녀 연령	5세 이하	39(44.8)	41.72(10.9)	1.14	
	6세 이상	46(55.2)	39.21(9.59)		
막내 연령	5세 이하	47(54.0)	41.49(10.3)	1.15	
	6세 이상	40(46.0)	38.98(10.1)		
어머니 연령	35세 이하	49(56.3)	42.31(10.9)	2.09*	
	36세 이상	38(43.7)	37.79(8.76)		
어머니 학력	초대졸 이하	34(49.4)	40.71(10.18)	.27	
	대졸 이상	53(50.6)	40.09(10.32)		
어머니 취업	전업 주부	34(49.4)	40.29(7.82)	.22	
	취업모	53(50.6)	40.36(10.6)		
취업관련 변인	시간적 융통성	낮음	16(49.1)	44.75(11.0)	2.04*
		높음	39(50.9)	38.46(10.0)	
직장 애착	낮음	22(41.5)	42.55(8.81)	1.27	
	높음	31(58.5)	38.81(11.6)		
지향성	가정	26(49.1)	43.42(9.72)	2.14*	
	직업	27(50.9)	37.41(10.8)		
심리사회적 지원 변인	정보 - 시가	낮음	66(73.9)	41.09(9.64)	1.23
		높음	21(24.1)	37.95(11.8)	
정보 - 시가	낮음	38(43.7)	40.32(11.4)	-.014	
	높음	41(56.3)	40.35(9.29)		
정보 - 이웃	낮음	37(42.5)	41.41(9.90)	.84	
	높음	50(57.5)	39.54(10.5)		
자녀돌보기 - 시가	낮음	63(72.4)	40.05(9.06)	-.42	
	높음	24(27.6)	41.08(13.0)		
자녀돌보기 - 친정	낮음	38(43.7)	39.39(12.1)	-.75	
	높음	49(56.3)	41.06(8.53)		
자녀돌보기 - 이웃	낮음	42(48.3)	41.24(10.7)	.80	
	높음	45(51.7)	39.49(9.80)		
남편의 협력	낮음	41(47.1)	43.54(10.1)	2.88**	
	높음	46(52.9)	37.48(9.51)		

\* p<.05, \*\* p<.01.

#### IV. 논의 및 결론

##### 1. 주말부부의 자녀양육 실태

- 조부모와 한집에 살면서 육아를 맡기거나 조부모의 집으로 아이를 보내거나 혹은 조부모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아주는 경우, 일반부부에 비해 주말부부 어머니는 시댁식구보다 친정식구를 의존하는 경향이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남편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친정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주말부부의 상



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말부부 어머니는 자녀와 시가식구보다는 친정식구와 더 많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대상 주말부부 집단의 특성도 이를 반영한다.

- 또한 일반부부에 비해 주말부부는 종일제 보육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종일제 보육기관에 잘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말부부라는 특성으로 인해 종일제 보육기관 외에 기타 다른 대리양육 방법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말부부는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복수 대리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부부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주말부부가 대리양육에 지출하는 비용(월 평균 40만원)이 일반부부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로도 나타난다.

## 2. 주말부부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

- 주말부부 자녀는 인지·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일반부부 자녀와 차이가 없었다. 이는 주말부부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을 직접 측정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한 것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자녀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 3.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죄책감

- 주말부부 어머니는 일반어머니보다 양육죄책감이 높았으나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편과 떨어져 생활한다는 상황으로 인해 어머니들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특별히 더 경험하지는 않지만 아이에게 미안함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남편의 동거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육아에 있어서의 남편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해준다.

## 4.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관한 주말부부 어머니의 지각과 귀인

- 주말부부라고 해서 일반부부보다 부모역할 수행을 더 어렵게 지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인지적 부모역할과 사회적 부모역할 중 어느 한쪽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 그러나 부모역할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어머니 자신 때문인지 혹은 자녀 때문인지에 관한 지각에 있어 주말부부 어머니는 일반부부와 차이가 있었다. 일반부부 어머니는 부모역할 수행이 어렵거나 쉽다고 해서 그 원인을 자기 탓이나 아이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주말부부 어머니는 사회적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수록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인지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주말부부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말부부 어머니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5.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관련 변인

- 주말부부가 된 이유가 부인의 취업에 있을 때 주말부부 어머니는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분거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 주말부부보다는,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분거를 결정하는 최근의 맞벌이 주말부부 어머니들의 심리적 갈등이 더 클 수 있음 시사한다.
- 예상과 달리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자녀수나 자녀의 연령과 관계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을 만 3-8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 범위를 확대하면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취업유무에 따라서도 양육죄책감은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 시간적 융통성이 높고, 직장에 애착이 강할수록 양육죄책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취업 유무보다는 취업 동기나 취업 조건 등이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 시가로부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받는 주말부부 어머니일수록 양육죄책감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는 양육의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지원 못지 않게 정신적 조언이나 대화 및 심리적 교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육아에 관련된 정보나 도움 등은 물론이고 남편의 협력도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 양육죄책감과 달리, 양육스트레스는 주말부부가 된 동기와 무관했고, 주말부부를 지속한 기간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방문 지속일수가 1-2일 일 때보다 3일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는 방문기간이 짧을 경우 이동으로 인한 피로 등으로 인해 아버지의 존재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될 주 5일 근무제는 주말부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방문 빈도와 관계없고, 오히려 전화나 이메일 등의 연락 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선택의 여지없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방문빈도보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락빈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편의 관심과 노력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 양육죄책감과 달리, 자녀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양육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학력, 소득, 취업 유무와 관계가 없고 시간적 융통성, 직장 애착, 가정vs직업지향성 등 취업관련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죄책감과 달리 남편의 협조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남편이 부모로서 부인과 대화하고 지원해주고, 자녀를 평가하거나 자녀 문제를 다룰 때 공통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다른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지원보다 어머니에게 위안이 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가족연구:지방과 해외근무지의 부부 및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학논집* 4, 143-160.
- 박성옥·양연숙(1998). 어머니가 지각한 가족의 지지, 격리불안,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한국영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희선(1999). 주말부부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한유미·장혜자(2000). 자녀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허영숙(1994).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erstel, N. R.,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NY: The Guilford Press.
- Johnson, S. E. (1986). Commuter family relationships: alive and thriv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Families Alive" Conference (7th, Ogden, UT, September 10-12).

- Melson, G. F., Ladd, G.W., & Hsu, Huri-Chin.(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Winfield, F. E. (1985). *Commuter Marriage : Living Together, Apar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